

2025 년 5 월 4 일 “(가정의 달) 소중한 선물: 부모와 자녀 “(엠펙 6:1-4)

사도는 부모 자녀의 소중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말라

에베소서 6 장 1 절에서 바울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관계 안에서의 태도와 인격적인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다’는 헬라어 *ὑπακούω*는 ‘듣다, 응답하다, 복종하다, 마음을 열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며, 나아가 부모 자체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아빠가 귀가할 때 “아빠~!” 하며 달려와 품에 안기는 모습은 단순한 행동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열린 마음과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한다고 해서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기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부모는 인내와 사랑으로 성품을 이끌어주는 인격적인 양육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덧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은 자녀의 몫이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길을 여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2] 노엽게 하는 것의 의미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분개하게 하다’, ‘화를 유발하다’ 입니다. 부모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자녀가 깊은 분노와 상처를 겪는 이유는 부모의 **말** 때문입니다. 말의 방식, 말투, 사용된 단어, 전달되는 감정이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You-message’가 아닌 ‘I-message’ 입니다. ‘You-message’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그러면 친구도 다 떠나고 실패할 거야!”라고 하여 자녀의 행동을 넘어 존재 자체를 비난합니다. 이는 자녀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며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I-message’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걱정이 돼”, “엄마는 슬퍼”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3] 말의 치명적 중요성

예수님은 우리의 참 양육자로서 죄와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죄가 아닌 초청이며, 심판이 아닌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 이 같은 말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면, 사랑과 올바른 언어로 자녀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를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어린 시절과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공경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말 한마디가 자녀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